

“미국·이란, ‘휴전 후 종전합의’ 2단계 중재안 수령”

이란 “일시 휴전에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안 해” ‘15~20일 최종합의’·‘45일 휴전안’ 보도 이어져

미국과 이란이 일단 휴전 합의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수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번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전쟁의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양측의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이날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다.

중재안은 즉각적인 휴전 후 종전을 비롯한 포괄적인 최종 합의로 이어지는 2단계 접근을 골자로 한다.

만약 계획안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양측은 즉각 휴전하고,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이후 15~20일

에 걸쳐 최종 합의를 모색한다. 최종 합의를 위한 제안에는 이란의 핵무기 포기과 대이란 제재 완화 및 동결자산 해제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은 이날 JD벤스 미국 부통령, 스티브 윙코프 미 중동특사,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각각 통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전달된 중재안에 담긴 사항들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란 측은 계획안을 수령한 사실은 확

인하면서도, 자국의 기존 입장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란 측 고위 관계자는 “이란은 파키스탄의 제안을 수령했으며, 현재 이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란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어떠한 데드라인(시한)이나 압박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은 현재 미국이 영구적 휴전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일시적인 휴전과의 교환이라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것”이라

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역시도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1단계 45일 휴전에 이어 2단계 전쟁 종식에 이르는 협상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 역시 중동 지역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45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포함한 중재안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휴전 후 종전 협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

어지고 있지만 중재국들이 제안한 휴전 기간에 관해서는 15~20일과 45일 보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소식은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 계획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들이 미 동부 시간 기준 5일(현지시간) 새 우주복인 ‘오리온 승무원 생존 시스템’(OCSS)을 착용 시험을 하고 있다.

美 ‘아르테미스 2호’ 달 중력권 앞두고 우주복 성능시험 수행

내구·내화·열 관리 기능 개선...최대 6일간 공기 제공 탑재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달 중력권 진입을 앞두고 우주복 성능 시험 임무를 시작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비행 5일 차를 맞은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오리온 승무원 생존 시스템’(OCSS)이라 불리는 주황색 우주복 시험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밝혔다.

OCSS는 유인 캡슐인 오리온 우주선 내에서 임는 우주복으로 발사와 지구 대기권 재진입, 달 인근의 고위험 임무, 비

상 상황 등에 적용하게 된다.

과거 ‘우주왕복선’ 시절의 우주복과 견줘 헬멧이 더 가볍고 튼튼해졌으며, 소음 감소와 통신 시스템도 더 강화됐다.

우주복의 내구성(耐火性)과 내화성, 열 관리 기능도 개선됐고 장갑은 터치스크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S·M·L 등 기성복 같은 크기로 제작됐던 ‘우주왕복선’ 시절의 우주복과 달리 승무원별로 맞춤 제작됐고, 지퍼도 개선돼 보다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우주복은 우주선 내 기압이 줄어든 경우 최대 6일간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하고, 귀한 시 캡슐이 지구 바다에 착수한 이후 캡슐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승무원의 생존을 지원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우주복을 주황색으로 제작한 것도 이때 승무원이 바다에서 쉽게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다.

승무원들은 이날 중력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장시간 착용 시 우주복의 성능과 기동성이 어떠한지, 열 관리와 통신 시스템 등 지원이 적절한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